

다산포럼

다산의 ‘악경’ 복원과 고악의 회복



김세종
다산연구소장

다산의 학문은 참 넓고도 깊다.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넘나들고 있다. 그의 시문과 책 속에는 당쟁시대 권력에 눈멀어 백성들의 곤궁한 살림은 아랑곳하지 않던 시절, 성인의 글을 근본 바탕으로 삼고 현인의 글을 거울삼아 경전을 재해석하고, 사회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진단하며, 해결 방책을 열거한 대목을 보면 그저 경외감이 들 뿐이다. 하지만 그가 음악에 밝은 음악학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다산은 요순시절 음악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밝힌 짙막한 논문 형식의 ‘악론(樂論) 2편과 고대 악률체계를 구현한 ‘악서고존(樂書孤存) 12권을 남겼다. 다산의 음악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교화하던 요순시절의 고악(古

樂) 즉 ‘악경(樂經)을 복원한 것이다. ‘악경’은 사람이 항상 좇아야 할 도리를 가리킨 6경 중의 하나이다. 6경은 공자가 13년을 온 세상 곳곳을 두루 유람하고, 고향 노나라로 돌아와 제자들에게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 6예(藝)를 가르치고, ‘시경’ ‘서경’ ‘예기’를 손질하고, ‘악경’을 바로잡고, ‘춘추’를 저작하고, ‘역경’을 덧붙여 6경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런데 ‘악경’은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경서를 불태운 분서(焚書) 이후, 학자들을 구덩이에 생매장시킨 갱유(坑儒) 때에 잃어버렸다. 뒷날 후한의 정현(鄭玄, 127~200) 등에 의하여 방대한 주석과 고증 작업으로 그나마 5경(五經)은 회복하였으나, 끝내 ‘악경’만은 부흥되지 못한 채 옛 경전 속에서 편린(片鱗)으로밖에 살필 수 없는 경이 되어 버렸다. 다산은 이러한 ‘악경’의 망실을 지극히 애석하게 여겼다. 요순시절 덕치를 펼치던 그 중심에 음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았고, 예악사상으로 점철된 공자맹자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가를 꿰뚫고 있었다. 다산은 짙막한 ‘악론’ 2편에서 “음악의

망실이 성인의 도를 어렵게 하였으며, 3대 성인의 정치를 잃어버리게 했다. 성인의 도는 음악이 아니면 행해지지 못하며, 제왕의 정치는 음악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하며, 천지만물의 정(情)도 음악이 아니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3대 이후에 오직 음악만이 완전히 망실하여 백세 동안 훌륭한 정치가 없었고, 사해(四海)에 착한 풍속이 없는 것은 모두 음악이 망실되었기 때문일 뿐이다”라고 지극히 애석하게 여기며, 당시 암울하고 혼탁한 사회 현상을 짚어 냈다. 강진 유배 시절에 편찬한 ‘악서고존(樂書孤存)’의 서문에는 음악에 대한 애착과 편찬 당시 병마에 시달린 가슴 뭉클한 사연이 전한다. 알다시피 다산은 1801년 겨울 강진에 유배되어 18년 남짓 귀양살이를 했다. 이중 다산의 10년 초당 생활은 오늘날 다산학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는데, ‘악서고존’ 또한 1816년(순조16) 55세 봄, 다산초당에서 완성된다. ‘악서고존’ 서문에는 “다산초안이 머무는 때에 다리가 붓고, 근육이 땅겨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한 상황에서 고악이 이미 망실하고 선성(先聖)의 도가 어두워졌으니 분변하지 않을 수 없

다”는 내용이 전한다. 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 스승이 부르면 글씨를 잘 쓰는 제자 이칭(李晴)이 밤이 적어 가며 책명을 ‘악서고존’이라 했는데, 이는 ‘한·당나라 이후 수많은 거짓 악서보다 이 외를 게 전하는 악서가 더 낫다’는 뜻으로, ‘악서고존’에 대한 가슴 뭉클한 사연과 함께 그의 자긍심도 느낄 수 있다. 실로 다산은 ‘악경’의 복원과 고악의 회복은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주도한 정도대왕의 말씀처럼, “지존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공부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첫째는 고전을 통해 진리를 배우는 일이며, 둘째는 탐구를 통해 문제를 밝히는 일이며, 셋째는 호방하고 힘찬 문장 솜씨로 지혜롭고 빼어난 글을 써낸 이것이야말로 우주 사이의 세 가지 통쾌한 일이다”고 한 것에 비유될 만하다. 다산이 동아시아 음악학자들이야 할 이룬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니, 그의 악률 이해에 대한 수리적 창의성과 독창적 경전 해석에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NGO칼럼

고려고 특별감사 결과, 광주시교육청에 원죄 있다



박경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필자가 근무하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에 고려고등학교 학부모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왔다. 이들 학부모들은 “모든 학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할 교육자로서 어떻게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있느냐”며 고려고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청 폭탄 전화, 특정 기사 댓글 작성 등의 단체 행동을 하거나, 학교가 학교 부지 전역에 특별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사실 고려고 학부모만 이러한 감정을 느꼈겠는가. 매일같이 학교 정문으로 등교하거나 체육 수업을 하러 체육관으로 갈 때마다 보이는 20여 점의 고려고 특

별감사 결과 부정 현수막은 모든 학생들의 정서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을 것인데, 오히려 학교는 ‘광주 특별감사 결과에 감사하며 감사’ ‘성적 조작 사실이만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강경한 현수막 문구로 광주시교육청의 정당한 행정 행위를 월권으로 뒤바꾸어 설명하고 있다. 고려고는 ‘일부에서 발생한 교육 과정 및 학업 성적 관리·평가 문제가 성적 우수자만 특혜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혜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5년 성적 우수자만을 편성해 자율 학습 때 넓은 책상 등 최선식 시설 제공하였으며, 2017년 기숙사 입사자에게 교내 전용 공간에서 야간 자율 학습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고려고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성적 우수자 특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은 전례가 여럿 있다. 이처럼 성적 우수자 관리는 각별한 시설 등 교육 환경 제공으로 특별 대접하는 정도도 인식되었지만, 이번 고려고 특별감사 결과처럼 대학 입시의 공정성 의의 심필 만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성적 우수

자 학생을 관리하는 경우는 광주에서 처음 밝혀진 일이다. 고려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와 같은 학업 성적 관리·평가 및 성적 차별에 관한 문제 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지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 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의 업무 방해를 저질렀음에도,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과정 위주로 수준별 운영하는 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며 전형적인 물타기 여론을 만들고 있다. 물론 고려고 측 주장대로 특별감사 결과는 어느 개별 교사의 일탈이며 관행적인 실수로 의한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불법과 편법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진행되는 것을 교장과 교감이 몰랐다거나 매우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침묵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기에 이들은 교육자이자 학교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고려고 특별감사 결과는 학교 관리자 뿐만 아니라 광주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스스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2016년 S여고 성적 조작, 지난해 D고교 시험지 유출 등 광주 관내 고등학교 성적 비리도 학업 성적 관리·평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으나, 이번 고려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무유기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고려고 특별감사 결과에 상응하는 형사적 조치를 취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고, 수학 교사 등 일부 교사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고려고 관련 사건을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처리하였으며, 경찰의 자료 요청에 대해 교육청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수사를 지연시켰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들을 추가 고발하고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고려고의 학급 수 감축 등 행·재정적 불이익으로 일방백계하고, 학업 성적 관리·평가 부정과 성적 차별을 일제히 근절하기 위한 광주시 내 고등학교 전수 조사를 진행하여 적법한 근거와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기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고광섭
해군과학기술학회장·목포해양대 교수

일본 정부의 비이성적 경제 보복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갈등이 이제 안보 영역까지 확장돼 가는 상황이다. 한일 관계가 어느 해 보다 혼란스러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420여 년 전 임진왜란 기간 중 조선과 일본이 치렀던 해전의 결과와 교훈을 상기해 보으로써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의 대응 자세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임진왜란 기간 중 조선 수군이 치른 해전 중 가장 대조적인 해전은 조선 수군

과 병사들의 결전 의지 결여와 도주였다. 실제로 해전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전투 중 전의를 상실하고 바다로 뛰어들거나 육지로 도망하였고, 심지어 원군의 장수였던 배설은 휘하 전선 및 병사들과 함께 도주하기도 했다. 이 해전을 두고 당시 군령 체계의 지휘관자인 이원익은 조선 수군은 처음부터 힘을 겨루어 싸우다 패한 것이 아니라 산 지나 죽은 지나 도망하기에 바빴다고 평했다. 명랑해전의 경우 해전 전 조선 수군의 전력은 칠천량해전의 패잔병 및 일부 수습된 병사들과 전선 13척에 불과하였다. 오죽했으면 조선 수군이 궤멸되었을 것일 것이고 있는 선조가 “수군을 가지고 바다에서 싸울 수 없으면 육지로 올라와 육군과 같이 싸우라”고 이순신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을까. 이에 대해 이순신 장군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선은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보고를 하고 명량수로에서 결전에 임하였고, 적보다 턱없이 열세한 전선과 병력으로 전투에 임

하여 승리를 했다. 이 두 해전 승패의 결정적 요인은 ‘왜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등 해전에 임하는 장수와 병사들의 결전 의지였다. 세계화 시대에 정상적인 국제 관계는 신뢰와 상호 존중 가운데 이루어진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신뢰와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불행했던 과거사를 안고 있는 한일 관계는 더욱 신중해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조치는 정상적인 국제 관계의 한계를 넘어 경제 전면전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한일 양국 간의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거울삼아 우리의 단합된 대응 의지를 우선적으로 보여 줄 때라 생각한다. 그래야만 이순신 장군이 말한 것처럼 상대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학습 효과는 더 어려운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 420여 년 전 명랑해전과 칠천량해전에서 일본 수군에 맞서 싸웠던 조선 수군이 보여준 대조적인 결전의 의지의 결과와 남긴 교훈은 여전히 현재도 유효하지 않을가.

社說

‘꿈의 빛’ 방사광가속기 이번엔 꼭 유치될

전남도가 국가 대형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해 한전공대 성공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엇그제 나주 한전공대 인근 80만㎡의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 3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서울에서 출범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한전공대와 연계한 최첨단 방사광 가속기 구축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 및 기술 자문을 하게 된다.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만든 ‘꿈의 빛’으로 물질의 미세 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첨단 연구시설이다. 화학, 생물, 반도체, 의학 등 기초 연구는 물론 바이오, 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첨단 과학 분야에 폭넓게 활용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중이온 가속기,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나섰으나 대전과 포항에 밀린 바 있다. 또한 양성자·중이온·중입자가속기가 광주·대전·부산에 각각 설치됐지만 호남권에는 가속기가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가 설치하려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포항의 3세대보다 방사광의 밝기와 크기가 100~1000배 뛰어나고 50개 이상의 실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전공대 인근에 이 가속기가 구축되면 국내외 유명 연구진 유치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전북대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호남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지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가속기 유치에는 이미 충북 등이 뛰어난 상태여서 전남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호남권에 가속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 지역 정치권도 전남 유치를 위해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

문화 예술인 지원도 수도권 편향이라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 예술인 지원 공모사업이 서울·경기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어 지방의 문화 예술인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공모사업 전체 선정 건수 2683건 중 71.9%인 1929건이 서울(1541건, 57.4%)과 경기(388건, 14.5%)에 쏠려 있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도 606억여 원 중 과반이 넘는 370억 원(61%)이 서울(296억800만 원, 48.8%)과 경기(73억9000만 원, 12.2%) 두 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대안정치연대)이 한국문화예술위로부터 받은 ‘공모사업 선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 현재 기준 서울 53.3%, 경기 14.6%로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단체)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는

비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전남의 경우 경북·충남 등과 함께 고작 1%대에 그쳤으며 광주 역시 전북·충북·경남 등과 함께 2%대에 머물렀다. 이는 공연 예술 분야 공연단체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에 57.8%가 집중되어 있고 등록 예술인도 두 지역이 6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역 편차는 해소돼야 마땅하다. 문화 예술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인해 역량이 우수한 지방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받아서 안 된다. 또한 공모사업의 일정 비율을 지역에 배분하도록 지원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최경환 의원의 지적대로 문화 예술 분야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별로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無等鼓

“끓임없이 내 길이 맞을까 여러분과 똑 같이 고민했습니다. 서른살이 되던 해, 탈출하기로 맘먹고 무작정 ‘섹스 앤드 더 시티’로 떠났습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90년대생은 잘 몰라요. (웃음) 지난 9월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서석동에 자리한 독립서점 ‘책과 생활’에서는 프랜차이즈 광고 전문가인 김진아 씨의 ‘북도크’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천 신형을 한 20대 청년세대 36명이 서점 내 좌석을 가득 채운 채 그의 강연 내용에 귀를 기울

그리고 페미니즘에 공감한다고 했다. 기자는 이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고심하는 청년세대의 현수막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롤 모델’을 절실하게 찾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계에서 입지를 굳힌 김 씨는 그들의 ‘롤 모델’이 될 만하다 싶었다. 그는 최근 ‘꿈은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광고 문구를 쓰기도 했다. 돌아보면 청년세대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대상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 그동안 청문회 등을 통해 사회 지도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구출판사 K)를 읽고 온 터였다. 서점 측은 신형자가 예정했던 정원(25명)의 두 배 가량을 넘기자 중간에 급히 마감했다고 한다. 강의 시작 전 한 학생에게 물어보니 “먼저 신형한 친구 얘기를 듣고 따라서 신청을 했다”고 했다. “많은 학생들이 (김 씨를) ‘롤 모델’로 여긴다”는 말도 덧붙였다. 학생들은 그가 여성으로서 치열한 광고 현장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겪었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경력 단절,

롤모델 없는 사회

은 이들의 치부(恥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청년세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다. 현 한국 사회는 ‘롤 모델이 없는’ 사회가 아닐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세대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 큰 산에 오르거나 폭풍우를 뚫고 대양으로 나아가려 할 때, ‘등대’나 ‘나침반’ 역할을 해 줄 롤 모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송기료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3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